

요한 1서 묵상 20  
(9/18/2020, 금)

찬양: 299(418)(하나님 사랑은)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서 4:19-5:3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진 성도들의 사랑 실천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이미 가르친 바와 같이 19 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며 성도의 사랑 실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기원과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길 중의 대표적인 것은 그분의 사랑의 길임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랑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사랑 실천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독특한 수사법으로 가르칩니다. 20 절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본 구절을 통해, 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던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거짓말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동시에 선포하면서,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랑할 향해서도 실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중의 어느 하나만 행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1 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은 영적 태생을 언급하면서 사랑 실천을 강조합니다. 5:1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영적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 실천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2 절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말함으로, 사랑은 몸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3 절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할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바램과 부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 30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신 30:11, 14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때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은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고 영적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 계명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 계명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천이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하십니다. 아울러 그 계명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은 복과 은혜의 길이며, 지키는 것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 가운데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전히 실천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2.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명을 깊이 헤아리며, 기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